



‘중간 단계’에선...

영화 ‘중천’. 천인 ‘소화’와 퇴마무사 ‘이곽’이 원귀를 피해 숨어있다(위). 원귀들과 일전을 벌이는 ‘이곽’(아래).

환생 준비하는 공간 ‘중천’ 서 벌어지는 대결 다툼

영화와 미술 그리고 의상이 만났다. 영화 ‘중천’이 개봉에 앞서 남산 N서울타워 파빌리온에서 열리고 있는 테마 전시회가 인기를 끌고 있다. 12월 27일까지 계속되는 ‘중천’ 테마 전시(art in the restless)는 ‘영화를 전시한다’는 컨셉으로 준비됐다.

이번 전시에서 미디어 아트와 설치미술의 정성급 작가인 양만기 교수(덕성여대), 이용백 작가가 ‘중천’을 테마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양만기 교수의 비디오 아트는 영혼세계를 다룬 영화 주제에 맞춰 관람객들의 손과 운명을 얽어주고 있어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중천’에 참가한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 에미 와다의 영화 의상과 일본 뮤지션 사기시 시로의 음악도 공개돼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개막날인 10월 16일 내한한 에미 와다 의상감독은 불교적인 이미지를 차용한 의상에 대한 소개를 하기도 했다.

에미 와다 감독은 <립튬 2.0>과의 인터뷰에서 “‘중천’이라는 공간 개념에 대해 맨 처음 들었을 때 불교적 이미지들이 떠올랐고 불상 사찰의 조각 같은 이미지가 많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중천’은 49일간 기억을 지우고 환생을 준비하는 죽은 영혼들의 공간을 말한다. ‘사람은 죽어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한 영화 ‘중천’. 제작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인들에게 익숙한 ‘49제’에 주목했다. 철철재라고도 불리는 불교의 의식에서 착안해 영혼들이 7일씩 7단계의 공간을 거쳐 이승의 기억을 정리하고 환생을 준비하는 판타지 공간 ‘중

천’의 기본 컨셉을 정했다.

‘중천’은 영혼들이 이승에서 지은 죄의 냄새를 씻기 위해 7일간 몸을 담그는 ‘탄취탕’, 가장 잘못된 일 한 가지를 떠올려야만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참선의 마을’과 도화일을 태우는 거대한 향로가 있어 영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도화 향기를 중천 전역에 퍼뜨리는 ‘참선관’, 이승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영혼들이 천인들 몰래 이승의 시장과 똑같이形形色색의 등불로 화려하게 만들어놓은 ‘이승의 거리’ 등 현실 세계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참신한 상상력의 공간들을 만들어 냈다.

‘중천’에는 중천을 지키는 천인 ‘소화’역의 김태희, ‘소화’의 생전 연인 퇴마무사 ‘이곽’역의 정우성, 중천을 장악하고자 반란을 일으킨 원귀들의 대장이자 생

전 ‘이곽’을 키워낸 처용대의 수장 ‘반주’역의 허준호 등이 출연한다.

원귀들의 반란 속에 중천은 위기에 처하고, 중천을 구할 수 있는 영체 목걸이를 지닌 소화는 그들의 표적이 된다. 반란을 일으킨 원귀들이 이승에서 형제같이 지냈던 퇴마무사 동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곽은 사랑하는 소화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막강한 원귀가 되어버린 이승의 퇴마무사 동료들과의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영화 ‘중천’에 대한 궁금증을 테마 전시 ‘중천’을 통해 해소해보자.

중천 홈페이지(www.joongchun.com)에 공개된 티저 동영상 예고편에서 중천의 판타지를 잠시나마 즐길 수 있다. 영화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 jyang@buddhanews.com

새단장 마치고 활력 충전

불교방송 가을 개편... 새 진행자들 ‘주목’



최정희



조순웅



전연아



이희구·정경환

불교방송이 가을 새단장을 마치고 11월 6일부터 새 모습으로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프로그램은 ‘BBS 정보매거진’ ‘정경환 이희구의 활력충전 2시 4시’ ‘BBS 초대석’ ‘BBS 기획토론’ ‘뉴스 파노라마-주간 포커스’ ‘책 읽어주는 라디오’ 등이다.

‘BBS 정보매거진’(월-금 8:30)은 한방 의학·법률·재테크 상담 등을 통해 청

취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한다.

‘정경환 이희구의 활력충전 2시 4시’는 매일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활기차게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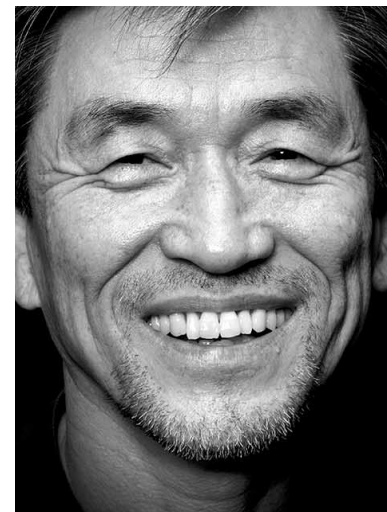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는 연극배우 전연아가 김미로운 목소리로 ‘책 읽어주는 라디오’를 진행한다. 주중 저녁 9시에는 최정희 전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이 ‘BBS 초대석’을 이끈다.

‘BBS 기획토론’(토 17:05) ‘뉴스 파노라마-주간포커스’(토 18:00)는 불교계 소식과 불교적으로 바라보는 사회문제들을 전한다.

‘아침저녁’은 조순웅씨가 진행을 맡았다. 조순웅씨는 지상파DMB U1미디어 사장, KBS 기자 출신으로 ‘뉴스 파노라마’ ‘사건 25시’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조순웅씨는 “지상파 방송사 사장으로 또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돼 부담이 되지만, 평생 방송기자로 살아왔다는 전문성이 용기를 줘 마 이크를 다시 잡게 됐다”고 밝혔다.

‘거룩한 만남’ 800회 방송에 관양숙 여사 출연 눈길



장사의 소리판 ‘사람이 그리워서’ 서울 세종문화회관 / 12월 10일

소리꾼 장사의, 어릿광대 노래 의사가 되어 세상 이곳저곳 노래로 보듬고 어루만져주며 행복주시를 놓다.

12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장사의 소리판 ‘사람이 그리워서’가 열린다. 2년만에 여는 정기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새로 발표한 5집 앨범 ‘사람이 그리워서’에 수록된 신곡들을 처음 소개한다. 5집의 대표곡 ‘황혼길’은 생을 마감하는 노년의 여정을 이룰때와 처절하게 그린 미당 서정주의 시가 장사의 특유의 창법과 어우러져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 구성했다. (02)336-0514 강지연 기자

11월 6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거룩한 만남’ 800회 특집 공개방송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사진)는 “‘거룩한 만남’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와 공생의 참 뜻을 널리 알리고,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따뜻하게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대지대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방송인 이상벽씨와 ‘거룩한 만남’ 진행자 지연 스님이 사회를 맡은 이날 공개방송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강지연 기자

불교TV 눈길 끄는 다큐 두편

11월 15일 저녁 7시 30분, 불교TV가 야심차게 내놓은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무문관(無門關)’이 첫 전파를 탄다.

중국 송대의 선승 무문에게 선사 화두집 <무문관>에서 따온 무문관 수행은 1956년 도봉산 전축사에서 6년 수행으로 처음 시작됐다.

‘무문관’에서는 우리나라 무문관 수행의 역사를 소개하고, 무문관 수행을 해본 중진 스님들의 증언을 통해 무문관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본다.

전축사에서부터 3년 결사도량 감사 대자암, 20년 이상 중진 수행자의 수행처 백담사 무금선원, 3년 결사종인 제주 남국선원,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하고 있는 강진 백련사 백련선원, 감포 관음사 무문관까지 전국

의 무문관을 전부 순례해 영상으로 담았다. 스스로 짚개는 3개월 길게는 수년을 고립과 고통 속에서 수행하는 이유를 듣고 깨달음으로 충만한 회열의 세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4일 오후 2시 30분 첫 전파를 탄 ‘우주를 품에 안다, 탄허’도 불교TV가 심혈을 기울인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다.

17일 저녁 11시 30분, 19일 오후 5시 30분에도 방송될 ‘탄허’는 한암대선사의 제자이며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선지식이었던 탄허 대종사의 일생과 업적, 스님이

철학한 사상을 영상언어로 담는다.

한암 선사가 제자가 아닌 도반으로 인정했을 정도로 학문의 경지가 높았던 탄허 스님. 스님이 변역한 불경은 <화엄경> <육조



무문관의 한 장면

법보단경> <보조법어> <영가집> <대혜어록 서장> <고보선요> <주역선해> <초발심자경문> 사서, 사집 등 만년필로 정서한 육필 원고지 20만 매 분량이다.

다큐멘터리 ‘탄허’는 탄허 스님이 정리한 불교 사상을 소개하고 동양사상을 불교적으로 조명했던 발자취를 더듬어본다.

강지연 기자

‘무문관’

수행 경험 스님들 통해 의미 살펴

‘우주를 품에 안다, 탄허’

생애와 사상, 업적 영상으로

머리에 똑똑!!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の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일반 실용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の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전화 02)737-0695/02)2004-8219

- ◇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 충청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문에 속 한맹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 이원중 전 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 김중호 전 내부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범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